

New Leader Ⅲ.

겸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높여지는 비밀

1. 리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지도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 이구동성으로 '겸손'을 말할 것이다. 지도자들은 왜 겸손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할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 **겸손** :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자학이나 자기혐오와는 다르다)

겸손에 대한 사전의 정의를 보면 특징이 있다. 남이 아는 부족함이 아닌, 자신 스스로 아는 부족함을 말한다. 이 부분이 겸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어떻게 아는가?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음을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라 한다. 성경에서도 겸손에 대한 의미는 다르지 않다.

(1)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안다. 신앙이란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아는 것이다. 아담이 범죄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다.

[창세기 3: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범죄 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은 아담의 위치이다. 사람의 범죄는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벗어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앞에 서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때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착각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스스로의 존재'를 자각할 수 있는 본능을 주셨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리이다. 그곳이 겸손의 자리이다.

(2) 겸손은 자학이나 자기혐오, 자기 비하와 다르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잘 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리'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누리고 있는 자리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있는 정체성의 특성은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마음의 태도'**를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범죄로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정체성의 상실이다. 죄의 결과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쓰레기라 여기는 마음이다 (탕자의 고백).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학이나 자기혐오, 자기 비하와 같은 낮아짐은 겸손이 아니다.

2.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 교만

왜 스스로를 아는 일이 리더에게 필요한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 아는 교만으로 가득하다.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에 서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의 특징은, 모든 것을 아래로 본다. 내려보는 마음이다. 모든 것을 자신 아래로 내려보는 마음이 교만이다. 교만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

'교만은 하늘의 천사를 타락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죄이다. 하나님을 경배했던 가장 아름다운 천사를 타락시켜 땅에 추락시킨 것이 교만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아름답고 높은 자리에 있던 천사의 추락은 끝도 없다. 가장 추악한 자리로 떨어지게 한 것이 교만이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의 파괴력은 강하다) '교만은 사람에게 나타난 가장 처음의 죄악이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안전한 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자신이 만든 '자기 의'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것은 가슴을 치며 죄를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지적했던 바리새인의 위선적 기도이다. 왜 그들이 세리의 기도를 정죄했을까? 자기 '의'로부터 나오는 '교만' 때문이다.

사울을 보라.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없어졌다. 그 결과가 교만이다. 자신만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비교의 대상인 다윗이 나타났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교만 때문이다. 자신보다 더 높아진 다윗이 견디기 어려운 것은 교만 때문이다.

3.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성경은 그래서 '겸손'을 강조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에는 비밀이 있다. 왜 겸손의 자리로 가야 하는가? 단순히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자기성찰의 마음, 그 이상이 있다.

(1) 겸손의 자리 - 하나님께서 직접 높여주심

[베드로전서 5:6]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빌립보서 2:6-11]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단순한 낮아짐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신다. 놀라운 비밀이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높여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높이시기 위함이다.

‘요셉’을 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있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요셉을 수직상승 시키신다. 중간에 과정이 없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사람의 힘과 방법이 쫓아올 수 없다. 초자연적이다. 설명할 수 없다. ‘모세’를 보라. 겸손히 광야에서 낮아진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할 지도자로 높이신다. 도망자의 신분에서 그 당시 최고의 왕과 견줄 수 있는 자리로 올리신다. ‘다윗’을 보라. 겸손하게 광야에서 낮아진 연약한 소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신다. 다윗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다.

이 비밀을 알아야 한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높여진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경주를 완주할 리더의 사명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리더는 ‘예배자’이다.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하늘의 예배의 하이лай트는, 권위와 권세로 상징되는 이집사 장로가 면류관을 벗어 어린양 앞에 두는 것이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높여진 새 리더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4:10]

이집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 겸손은 마음 뿐만이 아니라, 실재적으로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으신다. 우리 스스로 겸손하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 스스로 겸손하라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라” _ [데릭 프린스]

* 누가복음 14:7절 이후에 기록된 겸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누가복음 14:8-11] 8 네가 누구에게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9 너와 그를 초대할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 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10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칭찬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뒷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 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11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가르침은 추상적이지 않다. 실재적이다.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이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인이 와서 더 높은 게스트가 왔으니 자리를 비켜 달라 하면 부끄러워 가장 낮은 자리로 간다는 것이다. 반면에 스스로 말석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뒷 자리로 올라가라 말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영광의 순간이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바닥에 있으면 올라가는 길만 열려 있다. 바닥의 힘을 알아야 한다. 내가 스스로 바닥으로 가면 그 사람에게서는 올라가는 길만 열려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실재적인지 알아야 한다. 명심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말석의 자리에 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높이신다. 겸손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엘리베이터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11절을 꼭 기억하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